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0

▶ 61회 예고
마침내 아쇼까는 병석에 누운 빈두사라왕에게 왕권을 위임받는다. 다만, 수시마가 왕궁에 도착할 때까지이다. 그러나 수시마는 빠딸리뿌뜨라로 오다가 독살당한다. 이에 수시마 부왕비는 갓난아기 니그로다를 안고 천민촌으로 도망간다.



친위대 조장, 수시마를 독살하다

친위대 군사들이 강변에 임시군막을 설치했다. 수시마 부왕과 꾸날라 왕세자가 하룻밤 묵을 임시군막이었다. 친위대 조장이 요리담당관을 불렀다. 요리담당관은 궁중요리사들 중에서 차출한 친위대 조장이 아끼는 사람이었다. 콧수염을 길러 나이 들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른 살을 갓 넘긴 요리사였다. 친위대 조장이 말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은 특식으로 준비하게."

"알겠습니다. 마침 이곳으로 오다가 군사들이 잡은 공작새 두 마리가 있습니다."

"부왕님과 꾸날라 왕세자님은 공작새 요리를 올리고, 군사들은 새끼 말을 잡아 배불리 먹이게."

친위대 기병들이 타고 온 어미 말이 탁실라에 머무는 동안 낳은 새끼 말이었다. 친위대 조장은 새끼 말을 빠딸리뿌뜨라까지 몰고 갈 생각은 없었다. 가는 길에 잡아서 특식으로 요리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요리담당관은 임시군막 가까이에 있는 경계 군사들을 불러 요리를 서둘러 시작했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기 전에 공작새와 새끼 말을 잡아야 했다. 공작새는 경계 군사 한 명이 강가에서 털을 뽑았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새끼 말은 군사 서너 명이 모래밭 멀리 끌고 가더니 도끼를 든 군사가 새끼 말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솥단지를 걸고 장작에 불이 붙자, 강변은 야외 요리장으로 변했다. 솥에서는 말고기가 삶아지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공작새는 요리담당관이 따로 정성들여 요리했다. 말고기와 달리 털이 뽑힌 공작새를 통째로 화톳불에 구웠다. 뜨거운 불길에 기름이 지글거리고 연기가 스며들면서 공작새 훈제구이가 담백하게 만들어졌다. 임시 화덕에서는 짜파티가 노르스름하게 부풀었다. 친위대 조장은 요리 현장을 둘러보면서 특사의 말을 떠올렸다.

'부왕님을 마지막까지 잘 모시시오. 마음이 아프지만 마우리아왕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소. 장례는 예를 정중히 갖추어 지내주시오.'

수시마 부왕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자 군사 한 명이 재빨리 손 씻는 물을 떠와 바쳤다. 친위대 조장이 수시마 부왕에게 다가가서 보고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는 특식을 준비하여 군사들 사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오. 덕분에 나도 특별한 요리를 먹는 것 아니오?"

"오늘 저녁에는 공작새 훈제구이, 내일 아침에는 공작새 커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꾸날라 조카가 좋아하겠군."

"공작새 훈제구이는 대왕님께서 품평하셨던 방식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요리담당관은 궁중요리사 출신이니까요."

"아,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공작새 훈제구이를 여기서 먹게 되다니 정말로 기대가 크오."

수시마 부왕이 임시군막으로 들어가자 친위대 조장은 요리담당관을 격려했다.

"부왕님께서 그대의 요리를 기대하시고 있소."

"야생 공작새이기 때문에 고기가 싱겁고 질길지 모릅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싱거우면 소금을 뿌리고 질길지 모른다면 센 불에 살짝만 굽게."

이윽고 공작새 훈제구이와 짜파티 2인분이 친위대 조장의 눈을 거쳐 임시군막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요리담당관이 수시마 부왕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어깨를 으쓱하며 나왔다.

"요리담당관, 부왕님께서 만족하시든가?"

"공작새 훈제구이를 한 번 맛보시더니 빠딸리뿌뜨라에 가면 저를 우두머리 궁중요리사로 추천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축하하네. 꾸날라 왕세자님은?"

"맛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리담당관은 후식을 준비한다며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잠시 후 꾸날라가 임시군막에서 나와 말했다.

"백부님께서 공작새 훈제구이를 드시면서 하늘의 신들이 먹는 요리가 이럴 거라고 했어요. 짜파티를 네 장이나 먹었더니 배불러요. 저도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멀리 가지 마십시오. 후식이 곧 올 겁니다."

새끼 말을 잡은 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강바람에 피비린내 같은 것이 실려 오는 듯했다. 석양이 진 서쪽하늘의 붉은 놀은 시나브로 검붉게 변하고 있었다. 그제야 친위대 조장은 긴장했다.

'아, 내 임무를 깜박 잊고 있었구나!'

두말 할 것도 없이 친위대 조장의 임무는 수시마 부왕을 독살하는 것이었다. 그때, 요리담당관이 짜이 두 잔과 바나나와 포도가 든 은쟁반을 들고 왔다. 친위대 조장이 임시군막으로 들어가는 그를 막았다.

"놓고 가게. 꾸날라 왕세자님이 들고 가시게. 부왕님께서 옷을 갈아입고 계시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군사들이 말고기 요리를 먹고 있는 곳으로 가 있겠습니다."

"꾸날라 왕세자님만 오시면 나도 그곳으로 가겠네."

친위대 조장은 품속에서 독약을 꺼냈다. 그런데 두 잔의 짜이 중에 어느 잔에 독약을 넣을지 망설여졌다. 실수하면 꾸날라가 독약이 든 짜이를 마실 수도 있었다. 수시마 부왕이 살고 꾸날라가 죽는다면 자신은 빠딸리뿌뜨라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다.

'내일로 미룰까? 그건 안 되지. 좋은 기회는 언제나 단 한 번뿐이었어.'

친위대 조장은 짜이 두 잔을 놓고 당황했다. 어느 잔에 독약을 넣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때 꾸날라가 콧노래를 부르며 다가왔다.

"후식이군요. 내가 가지고 들어갈게요."



"왕세자님, 짜이 맛이 어떤지 먼저 보시겠습니까?"

꾸날라가 아무 의심 없이 짜이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친위대 조장은 그 순간 다른 짜이 잔에 독약을 넣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기회를 놓쳐버렸다. 꾸날라가 말했다.

"염소젖 맛이 나는군요. 탁실라에서 많이 마셔본 짜이에요."

"아, 네.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면 소젖으로 끓인 고급 짜이를 마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친위대 조장은 군사 두 명에게 임시군막의 경계를 맡기고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군사들은 화톳불을 피워놓고 교대해 가면서 저녁 특식을 먹고 있었다. 요리담당관이 말했다.

"조장님, 저녁을 드십시오. 말고기 가슴살 구이를 남겨 놓았습니다."

"난 생각이 없네. 내일 부왕님 식사는 뭔가?"

"공작새 커리입니다. 추운 아침에는 뜨거운 스프를 드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왕님 그릇은 준비해 두었는가?"

"예, 탁실라에서 가져온 동제 그릇이 있습니다."

"부왕님께는 늘 예를 갖추도록 하게."

"예, 조장님께서 음식을 확인하신 뒤 임시군막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친위대 조장은 임시군막 옆으로 돌아와 화톳불을 피웠다. 경계를 서는 군사 두 명이 친위대 조장의 눈치를 보며 화톳불을 쬐곤 했다.

다음날.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이른 아침이었다. 군사 두 명이 수시마 부왕과 꾸날라의 아침음식을 들고 왔다. 군사 한 명이 말했다.

"조장님께 먼저 보이고 임시군막 안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임시군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요리담당관을 불러오라."

"요리담당관께서 갑자기 배탈이 나서 저희들이 왔습니다만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두 명의 군사는 곧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친위대 조장은 동제 그릇을 보자마자 수시마 부왕의 아침음식이라고 직감했다. 꾸날라의 그릇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토기였다. 놀랍게도 친위대 조장은 태연했다. 품속에서 달콤한 독약을 꺼내 아무렇지 않게 공작새 탕에 넣었다. 그때 요리담당관이 허둥지둥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괜찮네. 아침음식을 가지고 들어가게."

친위대 조장은 임시군막 보초군사에게 경계를 잘 서도록 지시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안개 속에서 밤새 경계를 선 군사들이 화톳불을 피워놓고 몸을 말리고 있는 곳으로 갔다.

"밤새 추위에 떨었으니 뜨거운 말고기 커리를 실컷 마셔라. 여기서 배불리 먹고 출발하자."

"예, 조장님."

마침내 군사들이 모두 모여 솥 안의 말고기 커리와 짜파티를 다 먹어치웠다. 그런데 그때 짙은 안개 속에서 요리담당관이 뛰어와 소리쳤다.

"조장님! 부왕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천천히 말해 보게."

"꾸날라 왕세자님이 울면서 임시군막을 뛰어나와서 들어가 보니 부왕님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친위대 조장과 군사들은 임시군막으로 달려갔다. 꾸날라가 임시군막 밖에서 울고 있었다. 친위대 조장을 본 꾸날라가 울먹였다.

"백부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꼼짝을 안 해요."

군사들이 크게 술렁였다. 수시마 부왕을 안전하게 호위하지 못한 죄를 지었으니 모두 극형에 처해질 터였다. 친위대 조장은 동요를 막기 위해 명했다.

"부왕님께서 드신 음식은 공작새 훈제구이와 커리다. 이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책임이 있다면 나와 요리담당관이다."

"조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부왕님께서 요리를 드시고 급체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부왕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따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다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일이다."

친위대 조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웅성거림이 수그러들었다. 꾸날라도 울음을 멈추었다. 시신은 빠딸리뿌뜨라까지 운반할 수 없었다. 가는 도중에 시신이 부패하여 악취를 풍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친위대 조장 판단대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 군사들의 할 일이었다. 군사들은 화장할 나무를 구하러 흩어졌다. 그제야 요리담당관이 친위대 조장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조장님, 공작새 날카로운 뼈가 부왕님의 장기를 찌른 것 같습니다. 뼈를 걸러내지 못한 저를 처벌해주십시오. 죽여서 강에 던져주십시오."

"우리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갈 때까지 음식을 책임진 요리사이니 그럴 수 없네."

꾸날라가 한 마디 했다.

"조장님, 공작새 뼈를 삼키면 정말 죽기도 합니까?"

"왕세자님,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개가 강 너머로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다. 군사들이 강변에 생나무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다. 한 나절은 타고도 남을 나뭇단이 쌓였다. 친위대 조장은 수시마 부왕을 나뭇단 위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런 뒤 바로 망설이지 않고 불을 질렀다. 친위대 조장은 군사 네 명에게 지시했다.

"우리는 꾸날라 왕세자님을 모시고 사왓티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부왕님께서 남긴 재를 강물에 뿌려 시바신에게 바치고 오너라."

친위대 조장은 충격 받은 꾸날라를 위해 가능한 한 그곳을 빨리 벗어나려고 했다. 불에 타는 수시마 부왕을 지켜본 뒤 떠나고 싶었지만 꾸날라를 위해 그랬다.〈계속〉

간화선 실참의 터전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